

신안 낙도 도선 운항 끊길 위기

군 보조금 감축에 반발 파행 운항... 주민들 불안

신안 낙도 오지주민의 발 노릇을 하는 도선(渡船)이 보조금 감축에 반발해 파행 운항되고 있다.

3일 신안군에 따르면 일반 여객선이 다니지 않은 낙도와 본섬, 육지를 연결하는 일부 도선이 보조금 감축에 반발해 뱃길이 끊길 위기를 맞고 있다.

군은 지난해에 도선 22척에 3억 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7000만원이 줄어든 3억원만 확보된 상태다.

이에 따라 무안 운남 신월리와 압해도 가라리간을 하루 12회 운항하는 이도도 도선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운항을 중단했다가 주민과 군의 중재

로 이날 운항을 재개했다. 보조금 감축에 따라 1~4월 선장 급료 46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도선도 기름값을 결제하지 못해 주유소에서 기름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운항중단 위기를 맞은 등 정상 운항이 위태로운 상태다.

낙도 주민들은 "군에서 운영비

50%를 지원해 도선운항에 지장이 없었는데 기름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보조금 예산이 줄어 도선이 언제 멈출지 불안하긴 하다"고 말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도선 선장들이 효율적으로 도선을 운영하지 않아 보조금이 바닥나고 있다"면서 "추경 예산에 부족한 보조금을 확보해 뱃길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완도군 현안사업 국도 13호선 군의 불복~원동 개통

완도군의 현안사업인 국도 13호선 확·포장 공사 구간 가운데 군의 불복~원동 구간(6km)이 조기 개통됐다.

완도군은 지난 2일 군외면 원동리 신 완도대교 입구에서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과 김종식 완도군수,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가졌다.

이 도로는 군외면 불복에서 해남군 북평면 남창까지 8.35km로 157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군의 불복~원동 구간은 피서철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조기 개통됐다. 지난 2008년말 완도~군의 불복간 개통에 이어 이번 원동구간까지 개통됨으로써 완도군민들의 최대 숙원인 완도에서 군의 구간(14.5km)이 전면 4차로로 바뀌었다.

이 개통된 군외 원동~해남 남창구간(2.35km)은 내년에 정상적으로 개

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중에 개통될 해남 남창에서 삼산 구간과 연결이 되면 제주에서 완도를 거쳐 대도시로 향하는 화물 운송시간의 단축으로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등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완공을 눈앞에 둔 신 완도대교는 강재주탑 621t과 주탑높이 75m로 300t급 선박이 대교를 통과할 수 있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안전한 해상 항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시작한 군민들의 숙원사업이 하나씩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번 조기개통으로 수산물 운송에 소요되었던 많은 시간과 물류비용 등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다문화 가정 제주 봄나들이

목포 복지재단

목포복지재단(이사장 이혁영)은 지역사랑사업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다문화가정을 선정해 지난 29일부터 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 가족여행을 실시, 호응을 얻었다.

이번 제주도 봄나들이 대상은 한국에 정착한 중국, 베트남, 필리

핀, 태국출신 이주여성 15세대(30명)이다.

이들은 '바다의 호화'로 알려진 스타트루즈호를 타고 바다를 건너 후 제주도 주요 관광명소를 둘러봤다.

이혁영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접하지 못한 이주 여성부부를 대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이번 가족여행으로 결혼 이주여성에게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가정생활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농촌에 희망을~ 사랑 멜로디

농협 합평군지부 음악회

농협중앙회 합평군지부(지부장 김태남)는 3일 합평 엑스포공원에서 농협 창립 50주년 및 '제13회 합평나비대축제'를 맞아 '농촌 희망가구기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관내 농업인과

다문화가족, 지역주민 등 500여명을 초청, 농·도간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살기좋은 농어촌의 비전을 제시하는 '희망나눔 실천운동'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연팀인 '우주호와 음악친구들'은 10인의 한국 최정상급 유학파 대학 교수들로 이루어진 남성

양상블이다. 이들은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봉사를 우선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김태남 지부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하는 희망을 나눌 수 있는 농협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제13회 합평나비대축제 성공에도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무안군, 목포대와 갯벌연구소 운영

친환경 노지재배 해남산 고사리 인기

무안지역 생태자원을 연구하는 무안 갯벌연구소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3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역의 대표자연인 갯벌을 연구하기 위해 무안 생태갯벌센터내에 목포대와 공동으로 무안 갯벌연구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대학 연구인력과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무안갯벌 연구소는 관내 갯벌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조사연구 사업을 벌이며 갯벌과 관련된 인적자원 네트워크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갯벌과 관련된 표본과 자료를 모아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전시공간도 마련해 관람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해남산 친환경 재배 고사리가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3일 해남군에 따르면 옥천면을 비롯해 황산, 마산면 일대 고사리 재배농민들이 야생에서 자생하는 고사리를 밭에서 재배해 지난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수확해 판매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한 고사리 노지 재배는 면적이 계속 늘면서 올해 해남에서만 5.9ha에서 3t(다른 고사리 기준)이 생산될 예정이다. 고사리는 국내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1000㎡당 조수익이 200만원 가량으로 유명한 고수의 특색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사리는 한번 씨뿌리를 심으면 2~3년 후부터 매년 수확이 가능하고 재배가 쉬운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전 북

새만금 투자 '삼성 환영행사' 돌연 취소 왜?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을 환영하는 '터 밝기 행사'가 돌연 취소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은 2021년부터 7조6000억원을 들여 새만금지구에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에 진출하려는 삼성의 투자결정을 축하하고 삼성의 성공을 기원하는 이 행사를 3일 현지에서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를 계획이었으나 전날 밤 전격 취소됐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진주혁신도시 일괄배치설이 흘러나오면서부터다.

도내 정치권은 LH의 분산배치를

주장한 전북도가 경남에 일괄이전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르는 대신 삼성의 새만금투자와 맞바꿨다는 '빅딜설'을 주장하며 전북도에 불만을 터뜨렸다.

정치권은 "도내 곳곳에 수도 없이 내걸렸던 'LH 분산배치' 촉구 현수막이 갑자기 '삼성 투자환영'으로 바뀐 것은 석연치 않다"며 이를 빅딜설의 근거로 평가했다.

또 LH 일괄이전설이 흘러나온 1일 오후 국회에서 전북도와 도내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가 소집됐으나 정작 김완주 전북지사는 불참하고 대신 박종문 정무부지사만 참석

해 이 같은 빅딜설이 확산했다.

이에 일부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이날 행사에 '협조'하지 않을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도 "이 같은 상황에서 터 밝기 행사를 강행하면 빅딜설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하자 결국 행사를 취소했다.

그러면서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3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빅딜설이 나돌고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정치권이 근거도 없이(잘못) 전해듣고 LH와 삼성의 빅딜설로 오해하고 있다"며 수습에 나섰다.

LH의 지방이전 문제가 임박한 시

점에서 삼성 투자로 촉발된 빅딜설을 둘러싼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이 같은 공방은 자칫 분산배치를 위한 전력을 약화시키고 내부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도 고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의 핵심 투자지역으로 떠오른 새만금지구를 전국에 알리고 삼성그룹의 투자를 환영하기 위한 도민 축제를 열 계획이었으나 일부 정치권과 도민이 빅딜설을 제기해 잠정 보류한 것"이라며 "지금은 전북 도민 모두가 LH의 분산배치를 위해 온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연행뉴스

LH-새만금 빅딜설 확산

전북도 "오해살라" 없던일로

뉴스 브리핑

전북농기원 스마트 식물병원 클리닉센터 운영

전국 수박생산량의 13%를 차지하는 전북지역 수박농가들의 고민해결을 위해 '수박 스마트 식물병원 클리닉센터'가 운영된다.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조영철) 수박시험장은 최근 영농현장을 찾아 병해충을 진단하고 치료해 주는 '스마트 식물병원 클리닉

센터'를 본격 가동했다.

연구원과 선도 농업인 14명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은 농가들로부터 민원 의뢰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출동해 병해충 발생 등 원인을 분석 치료를 해주는 '원스톱' 시스템을 펼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전북 가축시장 150일만에 전면 재개장

구제역 여파로 폐쇄된 전북지역 가축시장이 150일 만에 전면 재개장했다.

전북도는 경북 안동의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30일부터 무기한 폐쇄했던 정읍과 남원, 완주 등 도내 10개 가축시장의 운영을 1일부터

전면 재개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달 중순부터 송아지 경매만 제한적으로 시행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축시장이 재개장했지만 구제역 차단에 힘쓰고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제주 뱃길 위그선 뜬다

50인승 이달부터 시험 운항

군산, 여수와 제주도간 뱃길에 수면 위를 낮게 떠서 비행하는 '위그선'(Wig Ship)이 투입된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오션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제주~군산노선에 50인승 위그선(50t급)을 운항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험 운항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션익스프레스는 지난 2월 군산 해양항만청으로부터 위그선 운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 상업적인 위그선 운항은 세

계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위그선 2척을 군산 비응항과 제주시 애월항 노선(길이 320km)에 투입해 하루 4차례 운항할 예정이다. 이 노선의 운항 소요시간은 1시간 50분이고, 요금은 4만~5만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션익스프레스는 이어 내년 2월 제주 애월항~여수항 노선(길이 220km)에 50인승 위그선(50t급) 3척을 투입해 하루 3차례 운항기로 하고 지난 4월 면허를 받았다. 위그선은 이 구간을 1시간 10분에 주파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도 교육청-공무원 노조 인사 마찰

전북도 교육청 공무원 노조가 도교육청의 인사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 교육청이 노조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정책을 편다는 것.

도교육청 공무원노조(위원장 이종찬)는 최근 "도 교육청이 기능직 결원 84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해 신규로 채용하려 한다. 이월 경우 기

능직 상위직이 줄어들어 승진이 막히는 데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인사계획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지난 3월부터 50일 넘게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직원들과 소통 구조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

기능직 축소, 일반직 신규채용

노조, 일방적 결정 철회 요구

과부가 총액인건비 시스템에 준해 기능직을 줄이고 일반직을 늘리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며 "교과부에 현재의 정원은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교육청의 노조원은 3700명이고 이 가운데 기능직이 2100여명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남원 '허브식품 클러스사업단' 공식 출범

남원시가 '허브 식품'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남원 허브식품 클러스사업단'은 지난 29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법인 설립 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정관(안) 심의와 함께 이사장 김경 서남대학교, 이사장 방금원 남원원에 조합장, 황대연 전

금원유기영농조합 대표, 김미경 자연 그대로 대표, 감사 조용심 지리산두루살 대표를 임원으로 선출하고 올해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번 사업단 공식 출범에 따라 ▲실무추진을 위한 사무국 등 조직체 구성 ▲남원 허브의 명품 브랜드화를 위한 산업화 지원사업 ▲대의 교

류협력 사업 ▲연구·기술 개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업단은 남원 허브식품의 브랜드 개발과 허브가공 표준화를 위한 장비 개발은 물론 '남원 허브축제'와 연계한 허브소비 확대전략을 수립하고 허브 추출물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 등을 통해 남원 허브식품을 명품화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김제경찰, 범죄취약지 등 '치안 북소리' 시행

김제경찰서(서장 조용식)는 시민들의 바람을 치안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치안북소리' 제도를 시행하고있다. 김제경찰청은 최근 1개월여에 걸쳐 관내 마을 이·통장 등 616명을 대상으로 거주지역 치안 등 6개 항목을 비롯해 범

죄취약지역 김제경찰청에 대한 주민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읍·면·동 단속강화 등 시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시내권 불법 주·정차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홍은선기자 hnews@